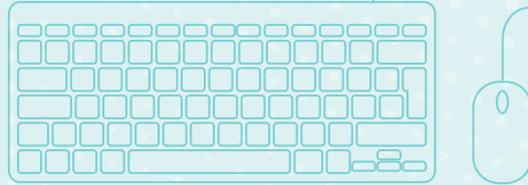


KIHA NEWS



예방 중심 중대재해 컨설팅 전담조직 '중대재해예방실' 신설

**모두가 건강한 일터를
소망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예방 중심 중대재해 컨설팅 전담조직
'중대재해예방실' 신설

최고의 전문가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석,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가장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
- ▶ 직업성 질병 예방
- ▶ 작업환경 개선
-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문의 : 02-2046-0522-4

협회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 이후 혼란을 빚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협회 사업총괄 이사 직속의 '중대재해예방실'을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예방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 직업성 질병 예방, 작업환경 개선,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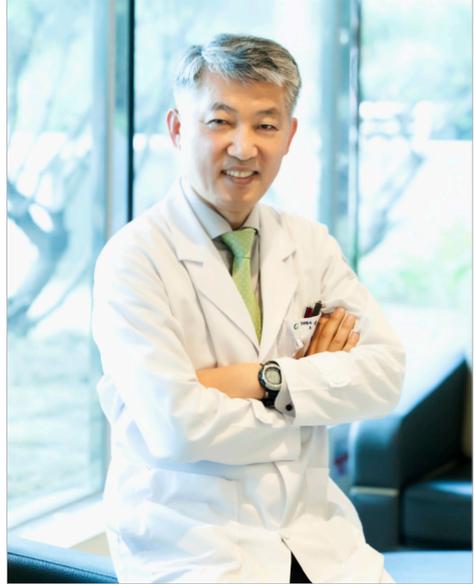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맞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과 평가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중대재해 컨설팅은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간호사, 가스기사, KOSHA-MS심사원 등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주도하며, 협회 6개 지역본부와 19개 센터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백헌기 회장은 “협회 60년 노하우를 활용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 집중하겠다”며 “처벌 회피가 아니라 예방에 나서도록 사업주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채용연계형 인턴' 72명 채용

협회는 일정 기간 인턴 채용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연계형 인턴' 72명을 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서류전형(1.21.~2.2.), 필기전형(2.15.), 면접(2.22.~2.23.)을 거쳐 72명을 선발해 2일부터 본부와 지역본부·센터에 배치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이란 일정 기간 근무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채용 방식이다. 이번에 채용된 72명은 10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고, 근무평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협회는 하반기에도 필요인력에 대해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할 계획이다.

백헌기 회장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를 모집하는 채용 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며 "협회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성규 부회장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당선

강성규 부회장은 제16대 국제산업보건학회(이하 ICOH) 회장으로 당선됐다. 금년부터 앞으로 3년간 2024년까지 회장으로 활동한다. 강성규 부회장은 일본 국적의 제14대 카주타카 고기 회장에 이어 아시아인으로는 2번째로 학회를 이끌게 됐다. 강성규 부회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과 안전보건공단 기술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길병원 국민검진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ICOH는 1906년 스위스에서 발생한 터널 산재 사고를 계기로 설립돼 전 세계 노동자의 산재 예방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산재 예방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공식 협력단체다.